

농림수산식품부 2013년 축산관련 예산

글 : 농림수산식품부 보도자료
(2012.10.27/10.29/11.01)

[예산 1] 국제곡물가격 상승에 대응, 축산농가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사료 관련사업 지원 확대

– 조사료 생산 확대 및 배합사료 지원을 위해 '13년 3,690억원 지원 –

□ 농림수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는 축종별로 경영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사료 구매비용 절감 및 축산농가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사료관련 사업의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.

○ 축종별로 경영비에서 차지하는 사료비 비중이 높아 사료 구매 부담이 축산농가의 경영에 부담을 주고 있으며,

* 전체 사료비/경영비('11) : (번식우) 73.4% (비육우) 50.2, (돼지) 53.3, (닭) 63.0

○ 특히, 국내 곡물수입량의 약 69.5%를 사료용이 차지('11년)하는 상황에서, 올 6월 중순부터 국

제곡물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내년 초에는 국내 사료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어 축산농가의 경영상 어려움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.

* 한국농촌경제연구원(KREI)은 최근 국제곡물가 상승으로 국내배합사료 가격이 '13년 상반기에 10.2% 수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음

□ 이러한 축산농가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농림수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는 기존 사료관련 예산을 증액하고, 사료현금구매 지원을 위한 신규 예산을 확보하여 축산농가의 사료비 구매 부담을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.

① 배합사료를 대체할 수 있는 양질의 국내산 조사료 생산을 위해 기존에 투입되던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예산을 1,540억원으로 확대하였다.

– 조사료 전문재배단지 지원을 위한 예산을 신규

로 편성하여 연중 조사료 생산기반 구축을 통해 연간 최소 10만톤의 증산 효과가 기대되며,

- 조사료 유통센터 지원액을 전년 대비 2배로 확대하여 소규모 농가 및 조사료 취급이 어려운 농가도 손쉽게 국내산 조사료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- ② 또한, 사료업체의 사료 원료 구매를 지원하기 위해 사료업체의 사료구매 예산을 950억원으로 확대하여, 배합사료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.
- ③ 특히, 내년부터 신규로 사료구매 방식의 변화를 통한 축산농가의 사료구매 부담 완화를 위한 예산을 1,200억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다.
 - 전 축종을 대상으로 2,400여 전업농가를 중심으로 평균 5천만원 수준으로 지원함으로써,
 - 현재 사료시장에서 외상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50%임을 고려할 때, 외상거래를 현금거래로 전환시 약 12~15%에 달하는 이자율 부담이 줄어들어 사료가격 인하 효과를 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.
 - 아울러 외상거래에서 현금거래로 전환하는 경우 외에도 현금거래를 선급금 거래로 전환하거나, 현금거래를 주문형(OEM)사료로 전환하여 사료가격 인하효과가 나타나는 경우도 지원하여 사료가격 인하 효과가 확대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.
- 농림수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는 국회의 예산 확정 이후 사료관련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여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 완화 효과가 조기에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
[예산 2] 2013년도 가축방역사업 등 예산 확대 지원

- 가축전염병 사전예방 및 국가방역대책 추진을 위해 981억 지원 -

□ 농림수산식품부는 구제역 등 각종 가축전염병 사전 예방과 국가방역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2013년도 가축방역관련 예산을 확대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
- 이에 따라 가축방역사업비는 올해 751억원보다 4.3% 증가한 783억 원을 투입할 방침이며, 예방 주사·진단 등에 소요되는 약품비 660억 원, 방역·소독차량 등 방역장비 75억 원, 방역인력 교육 및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 구축비 27억원, 긴급방역재료비 20억 원 등을 편성하였다.
 - 특히, 살처분되는 가축의 친환경적 처리를 위한 랜더링 처리시설 25억 원, 축산차량등록제 시행에 따른 차량용 무선인식장치(GPS)설치·운영비 19억 원과 2013년 8월부터 시행되는 수의사처방제의 운영을 위한 관리시스템 구축비 25억 원을 신규로 지원할 계획이다.
- 또한 소, 돼지, 닭 등 산업동물 사육현장의 일선 수의사들의 자질향상을 통한 국가방역능력 제고를 위하여 국비 50억원을 투자하여 산업동물 임상교육연수원 설립을 지원하고, 국제기준의 우수제조시설을 갖춘 동물용의약품 생산시설의 신·개축 및 수출업체의 운영에도 148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.
- 농림수산식품부는 가축방역사업 예산의 확대 지원 및 산업동물임상교육연수원 설립을 통하여 국가방역대책을 강화하여 구제역·AI(고병원성

조류인플루엔자) 등 악성가축전염병의 유입을 차단하고 국내 발생 및 전파를 방지하는 한편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항생제 등 주의동물용 의약품 오·남용 방지를 통하여 국민보건 위해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'13년 8월 도입되는 수의사처방제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.

- 또한 축산농가에 우수 동물용의약품을 공급하여 축산농가의 사육·생산비를 절감하고 수출확대를 통한 무역수지 개선하기 위하여 동물약품시설현대화를 지원하여 축산업 및 동물약품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.

[예산 3] '13년 한미 FTA 농어업분야 보완대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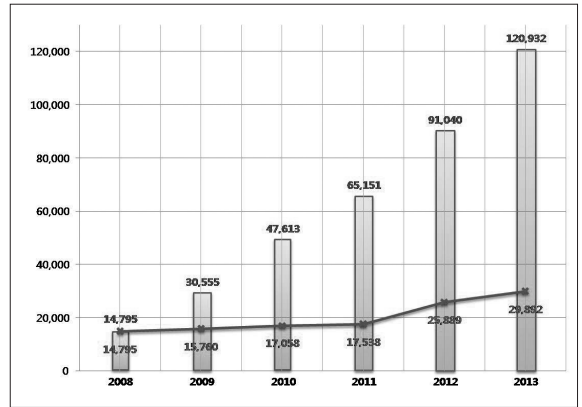
- 전년보다 4,024억 원 증액된(19.0%) 2조 5,255억 원 반영 -

- 농림수산식품부는 '13년 한미 FTA 농어업분야 보완대책 예산이 전년보다 4,024억 원(19.0%) 증액된 25,255억 원 수준(*농협자금 포함시 29,892억 원)으로 편성되었다고 밝혔다.

* 축사·원에 시설현대화, 후계농업인 육성 지원 등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 금액

- 「한미 FTA 추가보완대책」 ('12. 1.)을 통해 마련된 투융자 계획('08~'17년까지 총 24.1조 원)에 따라 '12년까지 지원된 예산은 91,040억 원(농협자금 포함)이며,
- '13년 예산을 포함할 경우 120,932억 원(농협자금 포함)으로 전체 계획 대비 50.2% 수준의 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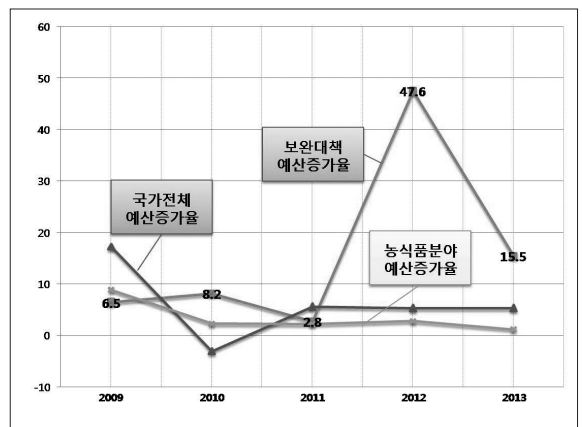
원이 이루어지게 된다.



한·미 FTA 보완대책 사업 투융자 동향 ('08~'13, 농협자금 포함)

- '13년 한미 FTA 보완대책 예산의 증가율은 국가 전체 예산 증가율이나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 증가율에 비교할 때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,

- 한정된 재원을 고려하여 한미 FTA 보완대책 등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 분야에 전략적으로 배분한 결과로 평가된다.



예산 증가율 비교('09~'13)

'13년 보완대책 예산안은 축산·수산 등 품목별 경쟁력 강화와 우리 농어업의 체질 개선을 위한 분야에 중점을 두고 증액 편성되었다.

- * 품목별 경쟁력 강화 : ('12) 11,655억 원 → ('13) 13,397, 14.9% ↑
- * 근본적 체질 개선 : ('12) 13,254억 원 → ('13) 15,515, 17.1% ↑

□ 사업별로 살펴볼 경우 '13년 보완대책 예산안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.

1. 선진국 수준의 경쟁력 조기 확보를 위해 축산, 양식장, 원예시설 등에 대한 시설 현대화 지원을 확대

- 생산성 및 품질 향상, 질병 관리제고 등을 위해 추진되는 시설현대화 사업에 전년 대비 30.9% 증액된 9,164억 원을 편성하였다.
 - * 시설현대화 사업 예산(예산 기준) : ('12) 4,171억 원 → ('13) 5,379, 29.0% ↑
 - * 시설현대화 사업 예산(실지원 기준) : ('12) 7,002억 원 → ('13) 9,164, 30.9% ↑
- 특히, 수출 수요가 높은 원예 품목 등에 대한 시설 신축을 지원하고, '12년 현장 농어업인들의 호응이 높았던 이차 보전(금리 1%) 사업을 신규로 원예분야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.

2. 최근 환경 변화 대응을 위해 축산 관련 예산 확대

- 가축분뇨 해양투기 금지 등 축산 위생과 관련된 제도 변화 대응, 질병 관리 및 품질 향상 등을 위해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 사업 예산을 확대 반영하였으며,
 - *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 : ('12) 693억 원 → ('13) 838, 20.9% ↑

○ 최근 사료값 인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축산 농가를 지원하고자 조사료생산기반 확충 사업 예산을 확대하고, 농가사료 직거래 활성화 지원 사업을 신규 반영하였다.

- * 조사료생산기반 확충 : ('12) 1,240억 원 → ('13) 1,540, 24.2% ↑
- * 농가사료 직거래 활성화 지원(신규) : ('13) 1,200억 원

3. 한국 농어업의 미래 준비를 위한 성장 동력 확충 사업 예산 확대

- 우리 농산물의 안전성 및 품질을 제고하여 지속 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조성하고자 친환경 농산물과 관련된 예산을 증액하고,
 - * 친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 : ('12) 289억 원 → ('13) 519, 79.6% ↑
 - * 친환경농업연구센터 : ('12) 40억 원 → ('13) 60, 50.0% ↑
- 글로벌 수출 종자 개발 및 민간 육종 인프라 확충 등 종자 산업을 고부가가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고자 관련 사업 예산을 확대하였다.
 - * 민간육종연구단지조성 : ('12) 29억 원 → ('13) 61, 110.3% ↑
 - * Golden Seed 프로젝트 : ('12) 25억 원 → ('13) 270, 980.0% ↑

4. 우리 농식품의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 강화

- 농식품 수출 확대 지원을 위해 수산물 수출 전략 품목 육성지원 사업(153억 원)과 글로벌 K-Food 프로젝트 사업(173억 원) 지원 예산을 신규로 반영하였다.